

고홍명(辜鴻銘)의 유교 경전 번역의 의의*

김 혜 영**

〈目次〉

I. 서론	III. 중국 도덕 문명의 보편성 제시
II. 서양 한학자 번역의 한계 지적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고홍명(辜鴻銘, 1857~1928)의 《대학》, 《중용》, 《논어》의 영어 번역서를 연구대상으로, 그가 유교 경전을 번역하게 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번역서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홍명은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으로, 당시 영국령이었던 페낭에서 태어났다. 10세 무렵 영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어나갔으며 에든버러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독일의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도 수학하였다. 1879년 페낭으로 귀국 후, 여러 가지 직을 맡았다. 북경에서는 영국 영사관 비서, 싱가포르에서는 영국 식민 정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885년 양광총독(兩廣總督) 장지동(張之洞)의 막료 생활을 했고 민국 성립 후에는 북경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¹⁾ 그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였고, 유럽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0465).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1)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중국역대인물 초상화, 전자판, Du, Chunmei, *Gu Hongming and the Re-invention of Chinese Civilization*, The faculty of Princeton university

각국의 언어를 배우며 소위 서양의 문물, 신지식을 일찍 접하였다. 하지만, 당시 엄복(嚴復),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등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이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 이를 중국에 전파함으로써 중국 근대화 운동에 앞장선 것과 달리 고흥명은 전통적 복고주의를 제창한 점이 특징이다. 그는 중국 전통문화에 신념을 갖고, 전통적 도덕관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행보로 ‘변발 교수’, ‘광인 선비(狂士)’, ‘괴결(怪傑)’과 같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고흥명은 유럽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그는 세계에 중국을 알리고자 서양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쓴 중국인 중의 한 명으로, 유교 경전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그 번역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다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가 영어로 저술한 *The Spirit of Chinese People* (《중국인의 정신》) 역시 독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대학 교재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흥명의 저역서는 20세기 초 서양에서 널리 읽혔고 그 결과, 고흥명은 타고르(Tagore), 간디(Gandhi), 톨스토이(Tolstoy)와 함께 서양에 동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국의 철학자, 성인으로 칭송받았다.²⁾

당시 서양에서 고흥명의 인지도,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그의 고전 번역서는 서양 선교사의 번역서에 비견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인으로서 유교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중국 문명을 서양에 알리고자 하였던 고흥명의 업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근대 시기 동서 문명 교류에 관한 연구는 대개 서학동점(西學東漸)에 초점이 있다. 일부 동학서점(東學西漸)의 관점에서 동양의 사상, 문화가 서양에 미친 영향력을 다룬 연구도 대개 서양 선교사의 업적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of Philosophy, 2009, 23-47쪽 참조.

2) 서양 사회에서 고흥명의 인지도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Du, Chunmei, *Gu Hongming and the Re-invention of Chinese Civilization*, The faculty of Princeton university of Philosophy, 186-187쪽.

고홍명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고영희, 진성수(2012), 고영희(2015), 김수영(2017)이 있다.³⁾ 고영희, 진성수(2012)는 고홍명의 일생과 해외에서의 활동, 그리고 번역 업적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보수주의적 사상 형성의 배경을 고찰하였다. 고영희(2015)는 제임스 레게(James Legge)와 고홍명의 《논어》 영역본을 연구대상으로 ‘예’의 번역어를 비교 분석하였다. 김수영(2017)은 문화 보수주의자 고홍명이 중국의 전통 문화에 부여한 의의와 근대 중국 건설에 미친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국외 연구 중에서는 Du Chunmei가 진정한 중국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고홍명의 노력과 그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 사람들에게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동양의 대표 인물로 부상하는 과정을 밝혔다. 그녀는 고홍명의 사상적 특징을 하이브리드, 양서류라 칭하며 근대시기 동서 문명 교류에서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는 근대 시기 중국이라는 역사적 배경 안에서 서양 문명을 모델로 하는 변혁을 추구하지 않고 전통문화를 지키고, 알리고자 하였던 고홍명이라는 인물의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그의 주요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전 번역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고홍명의 《논어》, 《중용》, 《대학》 번역서를 대상으로 그가 유교 경전을 번역하게 된 배경과 목적, 번역어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번역서의 서문 내용에 근거하여 기존 번역서에 대한 문제의식과 목적, 3장에서는 번역어 사용 및 번역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고홍명의 유교 경전 번역서에 대한 이해는 고홍명이라는 인물의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서양의 유교 문화 인식을 이해하기 위

3) 고영희, 진성수, <청말 지식인의 중국문화관-辜鴻銘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2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고영희, <논어 영역본의 개념어 비교 연구: 제임스 레게·고홍명의 ‘예’ 번역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김수영, <近代 中國의 知識界와 辜鴻銘의 文化 保守主義 -辜鴻銘 思想의 形成 過程과 特徵을 中心으로->, 《중국사연구》 제106집, 중국사학회, 2017.

한 한 가지 단서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서양 문물 수용보다는 문화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사상, 철학, 문화를 알리고자 앞장섰던 고홍명의 번역서를 고찰하는 과정은 서구 중심주의에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에게 유교를 비롯한 동양 자문화의 의미를 반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서양 한학자 번역의 한계 지적

고홍명의 《논어》, 《중용》, 《대학》 번역서의 서문 내용을 토대로 그가 번역을 시작한 계기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사서(四書) 가운데 가장 먼저 《논어》를 번역하여 1898년에 출간하였다. 영문 제목은 *The Discourses and Sayings of Confucius* (《공자의 대화와 격언》)이며 ‘괴테와 기타 작가들의 인용문으로 설명한 새롭고 특별한 번역(A new special translation, illustrated with quotations from Goethe and other writers)’이라고 부제를 달아 자신의 번역서를 소개하였다.⁴⁾ 실제 그의 《논어》 번역서는 괴테를 비롯한 여러 서양 작가, 철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서양인 독자가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논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⁵⁾

고홍명의 《논어》 번역서에는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레게 박사가 《중국 경전(Chinese classics)》 시리즈의 1권을 출간한지

4) Ku, Hungming 역, *The Discourses and Sayings of Confucius. A new special translation, illustrated with quotations from Goethe and other writers*, Shanghai: Kelly and Walsh Ltd., 1898.

5) 이는 3장 〈중국 도덕 문명의 보편성 제시〉에서 그의 번역서의 특징으로 다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레게 박사의 번역서를 읽어 본다면 그의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게 박사가 번역 작업을 시작할 당시 문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고 비평적 관점이나 문학적 인식이 완전히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게는 위대한 중국학자로, 중국 서적에 해박하지만 죽은 지식을 배운 전문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별세하신 위대한 중국학자를 평가하자면 그의 기질로 인한 매우 편협하고 좁은 그의 마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찰력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철저히 공을 들여 번역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성실한 학생이 자신의 철학적, 문학적 감각을 가지고 레게 박사의 심오한 번역서, 《중국 경전》을 공부한다면 그 안에 담긴 도덕적 문화, 소위 중국인의 문명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 독자 다수에게는 번역서에서 레게가 표현한 중국 사람의 지적, 도덕적 소양이 중국 사람의 복장이나 외모에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영국 사람의 눈에서처럼 이상하고 기괴하게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어로 쓰인 모든 책 중에서 중국인의 지적, 도덕적 자질을 형성하는 이 책을 일반 영어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교육받은 영국인이 생각을 표현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영어 독자들이 최대한 낯설고 기이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중국어 고유명사를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에 담긴 사상의 의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유럽의 알려진 저자들의 인용문을 참고 자료로 추가하였다. 바로 독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사상을 불러일으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⁶⁾

6) It is now forty years since Dr. Legge began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instalment of his translation of the "Chinese Classics." Any one now, even without any acquaintance with the Chinese language, who will take the trouble to turn over the pages of Dr. Legge's translation, cannot help feeling how unsatisfactory the translation really is. For Dr. Legge's, from his raw literary training when he began his work, and the utter want of critical insight and literary perception he showed to the end, was really nothing more than a great sinologue, that is to say, a pundit with a very learned but dead knowledge of Chinese books, But in justice to the memory of the great sinologue who, we regret to hear, has just recently died, it must be

이처럼 고흥명의 《논어》 번역서의 서문은 레게의 번역서⁷⁾에 대한 평가로 시작한다. 그는 레게가 문학적 글쓰기에 숙련되지 않았고 중국의 철학,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경전을 번역하여 그의 번역서는 서양인들에게 중국의 문명, 문화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

said that notwithstanding the extremely hard and narrow limits of his mind, which was the result of temperament, he was, as far as his insight allowed him, thoroughly conscientious in his work.

To an earnest student who can bring his own philosophical and literary acumen to study into those ponderous volumes know as Dr Legge's translation of the "Chinese Classics," no doubt some insight into the moral culture, or what is called the civilisation of the Chinese people, will reveal itself. But to the generality of the English reading people we cannot but think the intellectual and moral outfit of the Chinaman as presented by Dr. Legge in his translation of the Chinese books, must appear as strange and grotesque as to an ordinary Englishman's eyes, unaccustomed to it, the Chinaman's costume and outward appearance.

The attempt is therefore here made to render this little book, which, of all books written in the Chinese language, we believe, is *the* book which gives to the Chinaman his intellectual and moral outfit, accessible to the general English reader. With this object in view, we have tried to make Confucius and his disciples speak in the same way as an educated Englishman would speak had he to express the same thoughts which the Chinese worthies had to express. In order further to take away as much as possible the sense of strangeness and peculiarity for the English readers, we have, whenever it is possible to do so, eliminated all Chinese proper names. Lastly, with the hope of bringing home, so to speak, the significance of the thought in the text, we have added as notes quotations from we known European authors, which, by calling up the train of thought already familiar, may perhaps appeal to readers acquainted with those authors. Ku, Hungming 역, *The Discourses and Sayings of Confucius. A new special translation, illustrated with quotations from Goethe and other writers*, vii, viii.

- 7) 제임스 레게(James Legge, 1815~1897)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로, 서양 중국학자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동양의 문화를 전수하고자 중국 고전을 번역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서양 중국학의 기반이 되었다. 그는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서경》, 《시경》, 《춘추좌씨전》, 《역경》, 《예기》, 《도덕경》, 《장자》 등을 번역하였다.

다. 특히 중국의 문화에 생소한 서양인들이 그의 번역서를 접한다면 중국의 문화가 기괴하다는 편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자신 뿐만 아니라, 알라바스터(Chaloner Grenville Alabaster, 1838-1898)⁸⁾를 비롯한 서양인도 레계의 번역서에 불만을 품고, 《논어》를 다시 번역하려 하였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결국, 그들의 권유로 자신이 《논어》 번역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어서 《논어》번역서 서문의 마지막 단락은 중국문명, 문화에서 《논어》 텍스트가 지닌 의의를 소개하며 번역의 궁극적 목적을 밝혔다. 다음과 같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말과 담론을 요약한 이 작은 책은 중국인의 지적, 도덕적 소양을 구성하는 책이다. 훗날 매슈 아놀드(Matthew arnorld)가 ‘삶의 비평’이라고 부른 것과 같이 아주 작은 나침반과 같다. 여기에서 그 소양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밝히지는 않겠다. 우리는 단지 이 번역본을 읽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을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영국인들이 이 책을 읽은 후 중국인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을 재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국가로서 중국과의 개인적, 국가적 관계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⁹⁾

8) 중국에서 활동한 영국 행정가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에서 수학하였으며 1855년부터 중국에서 지내며 통역사, 부영사,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9) We have said that this little book, which contains the digested saying and discourses of Confucius and his disciples—presenting in a very small compass what the late Mr. Matthew Arnold would call a “criticism of life,”—is the book which gives to the Chinaman his intellectual and moral outfit. Of the nature and value of that outfit we do not feel ourselves called upon here to express the hope that educated and thinking Englishmen who will take the trouble to read this translation of ours, may, after reading it, be led to reconsider their hitherto foregone conceptions of the Chinese people, and in so doing be enabled not only to modify their preconceptions of the Chinese people, but also to change the attitude of their personal and national relations with the Chinese as individuals and as a nation. Ku, Hungming 역, *The Discourses and Sayings of Confucius. A new special translation, illustrated*

고홍명은 자신의 《논어》 번역서를 통하여 서양인이 중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이를 계기로 개인, 국가적 차원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논어》 번역서 출간 후, 고홍명은 동양의 지혜(The Wisdom of the East)시리즈¹⁰⁾로, *The universal order; or, Conduct of life, a Confucian catechism, being a translation of one of the four Confucian books, hitherto known as the Doctrine of the mean*(《보편적 질서, 혹은 삶의 수행, 유교 교리서, 유교 사서 가운데 *Doctrine of the mean*의 제목으로 알려진 하나의 번역서»)의 서명으로 《중용》 번역서를 출판하였다.¹¹⁾ 1906년 2월에 출판 후, 1912, 1920년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고홍명의 《중용》 번역서는 가장 먼저 동양의 지혜 시리즈 편집자의 서문을 수록하였으며 동양 경전 텍스트 번역의 궁극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시리즈 편집자의 목표는 아주 확실하다. 무엇보다도 이 책들이 동양과 서양, 고대 사교의 세계와 새로운 행동의 세계 사이에서 선의와 이해의 사절단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들의 영역에서 최고 모범의 추종자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 사상의 위대한 이상과 고상한 철학에

with quotations from Goethe and other writers, Shanghai: Kelly and Walsh Ltd., 1898, ix, x.

- 10) 동양의 지혜(The Wisdom of the East)시리즈는 122권으로 동양 고전 번역서, 동양학 학자들의 저서로 구성된다. 인도, 중국, 일본, 페르시아,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의 고전 작품을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함으로써 상호 공감, 이해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융합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19세기말부터 L. Cranmer-Byng, SA Kapadia의 편집으로 출판되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과 관련한 저역서로는 Ivan Chen 역, *The book of Filial Piety*, London: J.Murray, 1908. Lionel Giles 역, *The sayings of Confucius. Confucius*, London: J.Murray, 1907. *The Sayings of Lao Tzu and Taoist Teachings*, London: J.Murray, 1912. 등이 있다.
- 11) Ku, Hungming 역, *The universal order; or, Conduct of life, a Confucian catechism, being a translation of one of the four Confucian books, hitherto known as the Doctrine of the mean*, Shanghai: Shanghai Mercury, 1906.

대한 깊은 이해는 다른 신념과 특색을 가진 국가를 경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관용의 정신을 부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¹²⁾

즉, 동양의 지혜 시리즈는 동양의 고전을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서양의 동양 고대 철학, 사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동서 문화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다음은 고홍명의 《중용》 번역서의 서문을 수록하였다. 가장 먼저 《중용》의 제목에서부터 저자, 출현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 기존 번역서로 레계의 번역서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보다 앞서 출판한 고홍명의 《논어》 번역서에서는 레계의 번역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에 반해 《중용》 번역서의 서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다. 이어서 중국 문화, 문명의 특징과 그 안에서 《중용》을 비롯한 고전 텍스트가 갖는 의의를 서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중국의 낡은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학문과 진보의 문명이 이 나라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중국의 낡은 질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래된 질서, 즉 중국 문명과 중국 사회 질서는 도덕적 문명이고 진정한 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 The object of the Editors of this series is a very definite one. They desire above all things that, in their humble way, these books shall be the ambassadors of good-will and understanding between East and "West—the old world of Thought and the new of Action. In this endeavour, and in their own sphere, they are but followers of the highest example in the land. They are confident that a deeper knowledge of the great ideals and lofty philosophy of Oriental thought may help to a revival of that true spirit of Charity which neither despises nor fears the nation of another creed and colour. Ku, Hungming 역, *The universal order: or, Conduct of life, a Confucian catechism, being a translation of one of the four Confucian books, hitherto known as the Doctrine of the mean*, Shanghai: Shanghai Mercury, 1906, 6쪽.

현재 문명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다. 모든 사람이 삶의 모든 관계에서 도덕적 의무감을 무시하는 사회 상태를 상상해 보자. 그러한 상태가 단 한 시간 또는 한 순간이라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이러한 도덕적 의무감에 따라 전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회 상태를 상상해 보자. 그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적인 생활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중국 문명이 도덕적이고 참된 문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중국문명은 도덕적 의무를 사회 질서의 근간으로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을 그 유일한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질서, 교육의 계획, 통치 방법, 모든 사회적 기구는 그 목적과 목표가 이 도덕적 의무감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인간이 도덕적 의무에 순종하기 쉽도록 적합하게 맞춘 모든 습관, 취향, 생활 방식 및 삶의 추구만이 장려된다. 요컨대, 중국 문명이 인류 앞에 내세운 이상적 목표는 만인의 무한한 행복, 즉 만인의 무한한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진정한 도덕적 존재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도덕적 질서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세계가 질서가 되고 만물이 온전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나는 현재 중국인이 국가와 개인으로서 높은 이상인 그들의 문명 실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중국의 사기가 저하된 상황을 볼 때, 사실의 내면을 해석하고 들여다보는 수고를 감수한다면 중국 문명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명을 그 문명 아래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면 중국 문명은 확실히 실패한 문명이다. 그러나 그 문명 아래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감의 강도와 효과의 기준으로 문명을 판단한다면, 나는 지금도 중국 문명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의 상당수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지방 당국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이나 군대가 없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알려져야 한다. 그런데도 기근에 시달리는 최악의 지역에서 같은 면적이나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50만 양(tael)의 경찰력이 있는 상하이 부유하고 번영하는 외국 모델 정착지보다 무법, 공공질서 위반, 범죄의 비율이 더 낮을 것이다. 아

서 스미스 목사는 “유교의 답은 중국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유교의 답은 중국이다. 다만 전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내가 말한 중국 문명이 놀라운 성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의심, 트집의 여지없이 증명할 수 있다. 즉, 현재 무너진 공공 서비스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의화단 배상금에 대한 외국 권력과의 공공 계약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은 어떤 힘에 의존하여 중국의 4억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빚을 갚도록 만드는 것인가?

중국의 이 힘은 경찰이나 물리력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인의 고도로 발달된 준법 본능의 힘이다. 현재 상황의 시험과 긴장을 잘 견디고 있는 이 본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강한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답은 중국 문명으로부터이다. 따라서 나는 중국 문명은 놀라운 성공이라고 말한다.

아래 번역서는 중국 문명 체계에서 인간 행동과 사회 질서의 기초를 형성하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이념을 분명히 설명한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새로운 학습은 없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안에 진정한 학습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형태로 나타난 내용은 문명화된 모든 국가의 최고 문헌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것은 내가 텍스트 번역에 첨부한 주석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천 년 전에 쓰인 이 책에 있는 것처럼 같은 형태와 언어로 된 내용은 현대 유럽 최고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최근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¹³⁾

13) Most people now believe that the old order of things in China is passing away, and they hail the coming era of the new learning and of the civilisation of progress into this country. I for one do not believe that the old order of things in China can pass away. The reason is because I feel that the old order of things – the Chinese civilisation and Chinese social order is a moral civilisation and a true social order, and cannot therefore, in the nature of things, pass away.

Now, it i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in human conduct that makes not only civilisation but human society possible. Just think of a state of society where everybody disregards the feeling of moral obligation in every relation of life. It is impossible to imagine that such a state could exist for one

single hour or instant. Think, on the other hand, of a state of society where everybody acts solely and in perfect accordance with this sense of moral obligation. That would be an ideal existence in which not only police but all government would be unnecessary.

I say therefore that the Chinese civilisation is a moral and true civilisation because in the first place it not only recognises this moral obligation as the fundamental basis of its social order, but it makes the perfect attainment thereof in men its sole aim. Consequently, in the social order, the scheme of education, the method of government, and all social appliances have for their aim and object to educate men to the sense of this moral obligation ; and all those habits, tastes, modes, and pursuits of life alone are encouraged which are calculated to make it easy for men to obey the moral obligation. In short, the ideal goal which Chinese civilisation sets before mankind is not infinite happiness for everybody, which means infinite self-indulgence for everybody, but the complete and perfect "realisation of true moral being and moral order in mankind ; so that the Universe shall become a cosmos and all things can attain their full growth and development." I am well aware how very far the Chinese as a nation and as individuals are at present from the realisation of the high ideal of their civilisation.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 right to say here that even now, looking upon the present demoralised state of things in China, the Chinese civilisation, if one would take the trouble to interpret and look into the inside of facts, cannot be considered a failure.

I am well aware how very far the Chinese as a nation and as individuals are at present from the realisation of the high ideal of their civilisation.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 right to say here that even now, looking upon the present demoralised state of things in China, the Chinese civilisation, if one would take the trouble to interpret and look into the inside of facts, cannot be considered a failure. If you judge a civilisation by the extent to which men of means living under that civilisation can enjoy themselves, then the Chinese civilisation is certainly a failure. But if you judge a civilisation by the standard of strength and effectiveness of the sense of moral obligation in the nation living under that civilisation, then I think I can show that the Chinese civilisation even now is not a failure, but, on the contrary, a wonderful success.

Now, it is well known that in many parts of China at the present moment the greater portion of the population is living on the verge of starvation. It is also well known, or at least should be known, that the local authorities

고홍명은 중국 문명을 도덕적 문명이라 정의하고, 이는 실패한 문명이 아니며 사라지거나 새로운 서양의 문명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의 도덕 문명이 바로 진정한 사회 질서의 토대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중국의 도덕적 문명의 기저에는 개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이 자리한다. 즉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을 기반으로 도덕적 문명과 나아가 도덕적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개개인이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고 도덕적 존재로 자신의 위치에서 도덕적 질서를 실현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유교이며 유교 경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in China have no police, or any military force worth speaking of, to keep order. Nevertheless I think it can be shown that, taking the same area and size of population in any of the worst parts of these famine-stricken districts, there will be found there a smaller ratio of lawlessness, breaches of public order and crime than is to be found, say, in the wealthy and prosperous foreign model settlement of Shanghai, where there is a police force costing half a million taels a year. The Rev. Arthur Smith says : "The answer to Confucianism is China." I reply : Yes, the answer to Confucianism is China, only I say, you must look at China from the essential, moral side, and not merely from the electric-light side.

Indeed, if anything more is needed to prove what I have said, that the Chinese civilisation is a wonderful success, this one fact alone should prove it beyond any doubt or cavil : that notwithstanding the present demoralised state of the public services and the hunger-stricken condition of the people, the Chinese Government is still able to keep its public engagements with the foreign Powers for the Boxer indemnity. For what force is this upon which the mandarins in China depend, to make each unit of these four hundred millions hungry people in China pay up for a debt with which they individually have had nothing to do? This force in China is not police or physical force. It is the force of the highly developed, law-abiding instinct of the Chinese people. Whence comes this instinct which is now standing so well the test and strain of present conditions? It comes from a strong sense of moral obligation. But whence do the Chinese obtain this? The answer is : from Chinese civilisation. I say, therefore, that Chinese civilisation is a wonderful success. Ku Hungming 역, *The universal order: or, Conduct of life, a Confucian catechism, being a translation of one of the four Confucian books, hitherto known as the Doctrine of the mean*, Shanghai: Shanghai Mercury, 1906, 7-13쪽.

이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고흥명은 중국 사회, 문명을 도덕 문명으로 규정하고 유교 경전이 그 이념의 뿌리임을 강조하였다.

고흥명의 《대학》 번역서는 *Higher Education*을 서명으로 1915년에 출판되었다.¹⁴⁾ 이는 《중용》과 마찬가지로 공자 가르침의 교리 문답서라 소개하였으며, 《중용》과 함께 번역하여 출판하려 하였지만, 《중용》을 출판할 당시 《대학》은 완전하게 번역하지 못하여 더 늦게 출간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 세계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대학》 번역서를 선보인다고 하였다.

고흥명은 1898년 《논어》 번역을 시작으로 1915년 《대학》 번역서를 출판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유교 경전 번역에 매진하였다. 그는 서양 선교사, 혹은 서양에서 중국학자, 한학자라 불리는 이들의 경전 번역서의 한계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그가 경전을 번역하게 된 계기이다.

고흥명은 선교사를 비롯한 서양의 중국학자, 그리고 그들의 업적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일례로, 그의 저서 《중국인의 정신》에서는 〈중국학 학자1, 2(Chinese Scholarship I, II)〉를 구성하여 서양인의 중국학 연구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고흥명은 서양 중국학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기초 단계는 특정 지역의 방언집, 속담을 모은 책을 출판하거나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이고 중국과 관련한 책을 저술하거나 중국의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간주하였다. 그는 서양인의 중국 서적 번역 성과 중에서도 특히 서양인의 중국 경전 번역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서양 중국학이 기초 단계를 넘어서는 분기점에 있는 지역서로 토마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1818~1895)의 《어언자이집(語言自邇集)》(1867), 레계의 중국 경전 번역을 꼽았다. 우선 웨이드의 저서는 기존의 중국 언어에 관한 영문 연구서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리고 레계의 번역서는 중국 경전을 번역하였다는 점만

14) Ku, Hungming 역, *Higher Education*, Shanghai: Shanghai Mercury, 1915.

으로도 높은 단계의 연구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였다. 이는 고홍명이 레뮈자(Jean Pierre Abel Rémusat, 1788~1832)가 번역한 《옥교리(玉嬌梨)》를 하급 중국 문학 작품으로 분류하며 레뮈자의 번역서 역시 서양 중국학의 초창기 단계에 포함한 점, 그리고 자일즈(Lionel Giles, 1875~1958)가 번역한 《요재지이(聊齋志異)》는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역시 중국에서 최상급 작품은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고홍명이 벨포어(Frederic Henry Balfour, 1846~1909)의 《남화경(南華經)》 번역에 대해서는 사서오경과 마찬가지로 중국 문학, 중국 철학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텍스트라고 설명한 점 역시 그가 중국의 경전 텍스트, 그리고 그 번역 작업에 부여한 의의를 반영한다.¹⁵⁾

이처럼 고홍명은 서양의 연구자들이 중국 문화를 대변하는 경전을 번역한 점은 높이 샀지만, 그들의 번역서는 혹평하였다. 예를 들면, 고홍명은 레계의 번역서에 대해서 형식적 측면에서 용어가 어색하고 조잡하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철학적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어 레계가 공자의 가르침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¹⁶⁾ 자일즈 박사 역시 문장은 번역할 수 있었지만, 중국 문학, 사상 전반에 대한 유기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벨포어의 경우, 각 단어의 의미, 문장의 구성, 그리고 단락의 배열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⁷⁾

그는 경전 번역에 있어서 전체 텍스트와 그 시대 배경, 사상 체계에 대

15) Ku, Hungming, *The Spirit of the Chinese People: With an Essay on Civilisation and Anarchy*, HongKong : The commercial press, work ltd., 1922, 131쪽.

16) 고홍명의 레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다. 그는 레계가 고전을 번역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레계의 번역서는 혹평하였고, 서양의 중국학 연구자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 오리엔탈리즘 경향을 보인 아더 헨드슨 스미스(Arthur Henderson Smith)에 견주어 레계의 중국의 역사, 문헌에 대한 태도, 견해를 높이 샀다. Ku, Hungming, *The Spirit of the Chinese People: With an Essay on Civilisation and Anarchy*, HongKong : The commercial press, work ltd., 1922, 128쪽, 144-145쪽.

17) Ku, Hungming, *The Spirit of the Chinese People: With an Essay on Civilisation and Anarchy*, HongKong : The commercial press, work ltd., 1922, 115-116쪽.

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국 연구에 권위 있는 서양 한학자들조차도 중국어, 중국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 1822~1888)¹⁸⁾의 말을 인용하여 인류 전체의 정신 사인 문학이나 위대한 문학 작품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문학의 역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온전한 번역을 위해서 번역자는 원 텍스트의 전체 내용과 사상적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저술 당시의 정신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 《중용》을 함께 출간하지 못하고, 《대학》번역서를 늦게 출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번역은 의미를 완전히 파악한 후 문제(matter)를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본의 방식(manner)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¹⁹⁾의 방식(manner), 즉 문학에서 말하는 스타일(style)을 재현하려면 저자가 책을 저술할 당시에 도달했던 것과 동일한 정신 상태에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고흥명은 기존 서양 연구자들은 중국 문명,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그들의 경전 번역서 역시 그 가치를 서양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연구자로서 자신이 경전 텍스트 및 유교 사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경전을 번역함으로써 중국 문명의 가치를 서양에 전하고자 하였다.

고흥명이 중국 문명의 가치를 서양에 알리고자 한 이유는 유교의 가르침이 당시 서양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

18) 영국의 시인, 비평가, 교육자로 영국 교육제도의 개혁에 힘쓰며 근대적 국민교육의 건설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의 저서 《문화와 무질서(Culture and anarchy)》(1869)에서는 영국의 정치, 사회 문제를 비판하였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참조.

19) 영국 낭만파 시인으로, 영국 최초의 낭만주의 문학 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서정가요집(Lyrical Ballad)》 서문에서 ‘시골 가난한 사람들의 자신의 감정 발로만이 진실한 것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소박하고 친근한 언어야말로 시에 알맞은 언어’라고 하여 18세기식 기교적 시어(詩語)를 배척하였다. 영문학을 넘어서서 유럽 문화의 역사상 큰 영향을 미쳤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참조.

국 문명을 본보기로, 유럽 문명,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우아한 문체의 중국 경전에는 인류 문명의 고귀한 자산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인들도 서양의 헌법보다도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이처럼 고홍명은 유교 경전은 중국인의 지적, 도덕적 기틀이며 중국인의 정신, 문화를 대변하는 텍스트로 중요시하고, 서양 한학자가 경전을 번역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서양인 번역자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번역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고자 직접 중국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 문명의 진정한 가치를 서양에 전하고자 하였다. 그가 중국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 문명을 전달하고자 한 그 저변에는 중국 경전은 인류 문명의 보고이며, 당시 서양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럽 문명을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Ⅲ. 중국 도덕 문명의 보편성 제시

고홍명은 중국의 문명을 도덕 문명, 중국 문화는 도덕적이고 참된 문화라 규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용》 서문에서도 중국 문명은 개개인의 도덕적 의무감,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며 이것이 서양 문명과 근본적 차이점이라 강조하였다. 이는 고홍명의 번역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는 ‘모럴(moral, 도덕)’을 번역어로 사용하여 ‘인’을 비롯한 유교 사상의 여러 가지 덕목을 소개하였다.

20) Ku, Hungming, *The Spirit of the Chinese People: With an Essay on Civilisation and Anarchy*, HongKong : The commercial press, work ltd., 1922, 100, 121쪽.

〈표 1〉 번역어 ‘모럴’의 용례

인(仁) 인자(仁者) 인인(仁人)	high moral life, moral sense, moral man
도(道)	moral law, moral life, moral social order
중(中)	moral being
화(和)	moral order
중용(中庸)	universal moral order
군자(君子)	moral man a man with the true force of moral character
현(賢)	moral qualities
덕(德) 지덕(至德)	the power of moral nature, moral qualities, moral sentiment, moral power, moral worth, moral and intellectual power, the highest moral greatness
지성(至聖)	the man with the most perfect divine moral nature
예(禮)	moral and religious institution

고홍명은 유교 사상의 핵심 개념인 ‘인’을 포함하여 ‘도(道)’, ‘중(中)’, ‘화(和)’, ‘중용(中庸)’, ‘군자(君子)’, ‘현(賢)’, ‘덕(德)’, ‘지덕(至德)’, ‘지성(至聖)’, ‘예(禮)’ 등의 개념을 〈표 1〉과 같이 ‘모럴’과 관련한 개념으로 번역하였다. 그 밖에도 주나라의 덕, 요임금의 품성을 언급하면서 ‘주나라의 덕[周之德]’을 ‘moral greatness’, ‘위대하다, 요임금이여[大哉堯]’를 ‘Yao's moral greatness’로 번역하며 역시 ‘모럴’ 개념을 사용하였다.

‘모럴’은 본래 습속, 풍속을 뜻하는 라틴어 ‘모레스(mores)’에서 기원한다. 시대마다 다른 습속으로 성립된 사회적 규범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강제력이 있지만, ‘모럴’은 양심이나 내심의 명령으로 개인의 자발적 의지, 결단에서 비롯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규범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²¹⁾ 따라서 고홍명의 번역

21) 두산백과 두비피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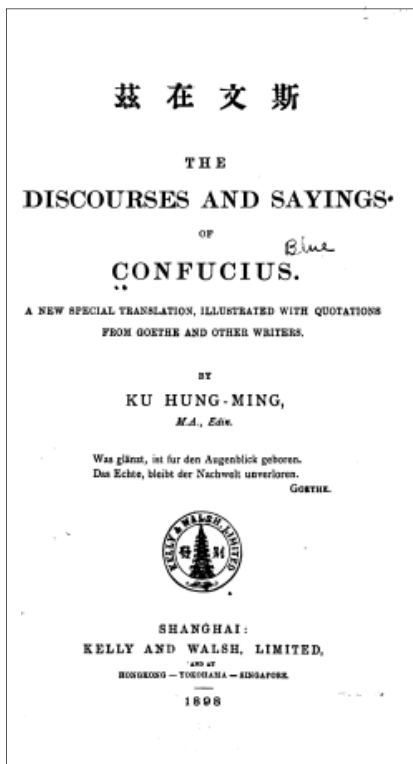
에 따르면 ‘인’, ‘도’, ‘중’, ‘화’, ‘중용’, ‘현’, ‘덕’ 등의 개념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덕목이라는 특징이 있다.

고홍명은 《중용》에서 애공(哀公)이 다스림을 묻고, 공자가 “정사를 함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취하되 몸으로써 하고, 몸을 닦되 도로써 하고, 도를 닦되 인으로써 해야 한다.”라고 답하는 구절²²⁾의 주석에서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의 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자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두 가지 도덕적 토대에 근거한다. 즉 하나는 인(仁)이며 이것의 가장 상위 표현은 모든 사람이 그들과 연관된 주변의 사람들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인 본능적 애정이다. 또 하나는 그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존경과 복종의 감정인 영웅숭배의 가장 상위의 표현인 의(義)이다. 가정에서는 본능적 애정이 복종을 쉽게 만들고, 국가에서는 영웅숭배가 복종을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이해관계이다. 국민은 제정된 권위에 복종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참아내라고 요구 받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아나키스트가 자신의 방식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파괴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악은 사회적 불평등의 악보다 더 나쁠 것이다.²³⁾

22) 故爲政在人，取人以身，修身以道，修道以仁。《중용》

23) According to Confucius, here, the basis of social inequalities rests upon two moral foundations, viz., the moral sense, the highest expression of which is natural affection—the feeling of love which all men feel for those nearly related to them—and the sense of justice, the highest expression of which is hero-worship—the feeling of respect and submission which all men feel for those worthier than themselves. In the family, natural affection makes submission easy, and in the state, hero-worship makes subordination natural and proper. But in Europe the plea for the justification of social inequalities is interests. The people are told to submit to the constituted authorities and to put up with social inequalities because it is to their interest to do so ; for if they allow the anarchists to have their way and destroy social inequalities, the evils which will result from this will be worse than the evils of social inequalities. Ku, Hungming 역, *The universal order; or, Conduct of life, a Confucian catechism, being a translation of one of the four*



〈그림 1〉 *The Discourses and Sayings of Confucius* 속표지

정신》에서도 중국 사회는 개개인이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사회로, 경찰, 군인, 정부와 같은 외부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서양 사회와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문명의 보고는 도덕성을 지닌 중국인이며 유교는 바로 이러한 중국인을 양성하며 중국 사회와 문명의 발전 방향을 규정하고 그 기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²⁴⁾ 따라서 그는 번역서를 통하여 중국의 문명을 서양에 적극적으로

중국인은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인 ‘인’, 상하 관계에서 느끼는 존경의 감정인 ‘의’에 근거하여 가정에서는 부모, 사회에서는 통치자에게 복종한다. 즉 ‘인’, ‘의’의 감정에서 도덕적 의무감을 지닌 각각의 사회 구성원은 작게는 한 가정, 나아가 한 국가에서 계급 사회를 공고히 한다. 고흥명이 ‘효(孝)’를 ‘착한/의무감 있는 아들(good/ dutiful son)’, ‘제(弟)’를 ‘착한 시민(good citizen)’으로 번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사회의 상하 구조에서도 자발적 복종을 유발한다고 간주하였다.

고흥명은 도덕성이 중국 문명의 핵심이며 서양 문명과의 차이점으로 강조하였다. 그의 저서 《중국인의

Confucian books, hitherto known as the Doctrine of the mean, Shanghai: Shanghai Mercury, 1906, 30-31쪽.

24) Ku, Hungming, *The Spirit of the Chinese People: With an Essay on Civilisation*

으로 알리고자 하였으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인용이다.

고홍명은 서양 독자들이 중국 문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양의 작가, 사상가의 글을 다수 인용하였다. 자신의 《논어》 번역서를 ‘괴테와 기타 작가들의 인용문으로 새롭게 번역한 특별한 번역서’라고 칭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논어·자한(子罕)》의 ‘천하의 학문이 여기에 있다(斯文在茲)’는 구절과 괴테 《파우스트》의 ‘번쩍이는 것은 순간을 위해 생겨난 것이니, 참된 것은 후세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는 법이다(Was glänzt, ist für den Augenblick geboren, Das Echte bleibt der Nachwelt unverloren)’의 구절도 함께 제시하였다. 《대학》, 《중용》의 번역서에서도 플라톤, 소크라테스, 루소, 셰익스피어, 괴테, 몽테스키외, 그리고 당시 영국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워즈워스,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²⁵⁾,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²⁶⁾, 아널드, 그리고 미국인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²⁷⁾을 자주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중용》에서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못하겠구나.”라고 말한 구절에서 도(道)는 도덕적 법칙, 사회 질서를 의미하며 당시 사회에 대한 공자의 비판적 견해로, 현대 유럽 사회의 칼라일, 러스킨이 당시 서양 사회를 비판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순임금은 지적 본성으로 진

and Anarchy, HongKong : The commercial press, work ltd., 1922, 159-160쪽.

25) 칼라일은 영국 비평가 겸 역사가로 저서로 《프랑스 혁명(The French Revolution)》(1837)이 있다. 당시 영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 사회악, 빈곤 문제에 격분하였으며 혁명을 지배계급의 악한 정치에 대한 천벌이라 평가하였다. 두산백과 두비피아 참조.

26) 러스킨은 영국의 비평가, 사회사상가로 전통과 경제학을 비판하고 인도주의적 경제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 개조를 통한 사회개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지나간 일들(Praeterita)》을 집필하였다. 스승인 칼라일을 계승하여 그 역시 산업 사회의 추악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심미감, 예술성의 결핍을 지적하며 미술 평론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산업 사회에서 비인간적, 비심미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 그리고 그 사회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개혁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두산백과 두비피아 참조.

27) 미국 사상이 겸 시인으로 주요 저서로 《자연론(Nature)》(1836), 《대표적 위인론(Representative Men)》(1850)이 있다. 두산백과 두비피아 참조.

정한 헬레니즘(hellenism), 안회는 도덕적, 정서적, 종교적 본성으로 진정한 헤브라이즘(Hebraism)을 대표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아널드가 《문화와 무질서》에서 세속과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헬레니즘과 대비되는 용어로 도덕과 종교를 상징하는 용어로 헤브라이즘을 사용한 것에 근거한다.²⁸⁾ 《대학》 ‘그 뜻을 성실히 하다[誠意]’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고홍명이 서양 철학가의 말을 인용하고 중국 고전의 성인이나, 공자, 맹자를 서양의 사상가에 견주어 설명한 것은 우선, 서양의 독자들이 유교 경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형식 면에서 공자, 제자와의 대화를 영국인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에서부터 내용 면에서 서양 철학가의 말을 유교 경전 구절과 비교하기까지 고홍명은 서양인 독자가 중국 고전의 의미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고홍명 번역서의 인용은 유교 사상이 서양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가 《중국인의 정신》에서 동양의 공자와 서양의 셰익스피어, 피테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과 같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가 사상이 인류 보편의 가치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Du Chunmei 역시 고홍명이 하이브리드 사상 체계를 개발한 것은 서양 청중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적 가치 체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고홍명은 서양, 동양 사상가의 인종, 국적의 차이보다 그들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주목하고 모든 사회와 인간에게 동일한 가치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편주의자라 평가하였다.²⁹⁾

고홍명의 유교 경전 번역은 도덕 문명으로서의 중국 문명의 정체성을

28) Ku, Hungming 역, *The universal order; or, Conduct of life, a Confucian catechism, being a translation of one of the four Confucian books, hitherto known as the Doctrine of the mean*, Shanghai: Shanghai Mercury, 1906, 16-18쪽.

29) Du, Chunmei, *Gu Hongming and the Re-invention of Chinese Civilization*, The faculty of Princeton university of Philosophy, 2009, 167쪽.

서양에 알리고 유교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는 유교를 ‘훌륭한 시민의 종교(the religion of good citizenship)’라 칭하며 당시 서양의 정치, 사회, 종교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서 사상의 융합을 통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의 포부를 담고 있다.

IV. 결론

유교 자본주의, 유교 민주주의는 동서 사상의 융합을 통하여 서양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용어의 타당성이나 유교 사상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더라도 유교가 중국, 동아시아만의 전통적 문화유산이 아니라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은 점은 의미가 있다.

고홍명은 이보다 앞서 1차 세계대전 시기 서양 문명의 한계를 인식하였으며 물질문명을 앞세운 서양 문명과 차별화된 중국의 도덕 문명을 소개하였다. 중국 문명은 도덕 문명으로 구성원의 도덕성, 도덕적 의무감을 토대로 하며 서양 사회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도덕성은 유교 사상에서 기원하며 《논어》, 《대학》, 《중용》을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중국 문명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자 하였다.

이미 기존 서양 중국학자들의 경전 번역서가 있었지만, 서양 번역자의 유교 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히려 서양 독자들이 중국의 지적, 도덕적 문화에 대한 편견을 심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 서양 작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자의 사상과 비교함으로써 서양 독자들이 유교 경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교의 가르침이 기존 서양 철학, 사상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유교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인류 보편의 가치 체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고홍명의 유교 경전 번역서는 서양의 물질문명에 대한 도덕 문명으로서의 중국 문명의 소개함으로써 동서 사상의 융합을 통한 인류 문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궁극적 의도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고홍명 경전 번역서의 문제의식, 목적을 밝히는 것에 그쳤지만, 이를 토대로 향후 고홍명의 경전 번역서와 서양 중국학자 번역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의 번역어 사용의 특징과 중국 경전 번역사에서 갖는 의의를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고홍명 지음, 김창경 옮김, 《중국인의 정신》, 서울: 예담차이나, 2004.
- 고영희, 진성수, 〈청말 지식인의 중국문화관-辜鴻銘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2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 고영희, 〈논어 영역본의 개념어 비교 연구: 제임스 레게·고홍명의 ‘예’ 번역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 김수영, 〈近代 中國의 知識界와 辜鴻銘의 文化 保守主義 -辜鴻銘 思想의 形成 過程과 特徵을 中心으로-〉, 《중국사연구》 제106집, 중국사학회, 2017.
- 辜鴻銘 著, 《辜鴻銘講國學》,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9.
- Du, Chunmei, *Gu Hongming's eccentric Chinese odysse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9.
- Ku, Hungming 역, *The Discourses and Sayings of Confucius. A new special translation, illustrated with quotations from Goethe and*

- other writers*. Shanghai: Kelly and Walsh Ltd., 1898.
- Ku, Hungming 역, *The universal order; or, Conduct of life, a Confucian catechism, being a translation of one of the four Confucian books, hitherto known as the Doctrine of the mean*, Shanghai: Shanghai Mercury, 1906.
- Ku, Hungming 역, *Higher Education*, Shanghai: Shanghai Mercury, 1915.
- Ku, Hungming, *The Spirit of the Chinese People: With an Essay on Civilisation and Anarchy*, HongKong: The commercial press, work ltd., 1922.
- Du, Chunmei, *Gu Hongming and the Re-invention of Chinese Civilization*, The faculty of Princeton university of Philosophy, 2009.
- Du, Chunmei, "Gu Hongming as a Cultural Amphibian: A Confucian Universalist Critique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Journal of World History* 22.4, (2011).

<Abstract>

This study reveals the purpose of Gu's translations and presents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lation by examining Gu's English translations of Confucian classics, *Analect*, *Doctrine of the Mean*, *Great learning*.

Gu, Hongming was exposed to and educated in Western culture early on. While other Chinese intellectuals at the time embraced Western culture and tried to bring it back to China, he took the alternative ways to believe in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advocate Cultural Conservatism. With the intention of keeping traditional morals at home and promoting them in the West, the translation of Confucian classics is

one of the entities to actualize his stance.

Gu translated Chinese classics into English because the existing translations by Western sinologists did not fully understand Chinese culture and could not deliver the essence of culture. Gu also believed that sinologists' translations caused Western readers to view weird Chinese intellectual and moral content. Gu hoped to correct Westerners' misconceptions about Chinese culture through his translations of Confucian classics. Gu considered Confucian classics to be the framework of Chinese culture, which could provide Western society with the motifs of a new social order.

He characterized Chinese civilization as a moral civilization. He often used the concept of 'moral' as translation term of 'Ren(仁)', 'Dao(道)', 'Zhong(中)', 'Hua(和)', 'Zhongyong(中庸)', 'Junzi(君子)', 'Xian(賢)', 'De(德)'. Gu emphasized that Chinese civilization is based on moral oblig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obeying rules, laws, and doctrines imposed by the police and government in the West.

Morality is the feature that originates from conscience, willingness, and determination. It is the morality that is taught in Confucian texts. In addition, Confucianism functions as a religion in a broad sense in China. Gu represented Confucianism as the solution to religious and social problems the West faced.

Key Words : 고흥명(Gu Hongming), 유교 경전 번역(Translation of Confucian classics), 대학(Great learning), 논어(Analect), 중용(Doctrine of the Mean), 중국인의 정신(The spirit of the Chinese people)